

연구논문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여유진**

연령별·영역별 박탈의 수준과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첫째, 노인은 전반적인 박탈 경험률이 높은 데 비해, 중장년층은 특히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노인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을 불문하고 전체적인 박탈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은 박탈 경험과 사회적 포용 간에, 장년층은 박탈 경험과 사회적 신뢰 간에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기초생계의 박탈이 높을수록, 장년층은 문화와 사회적 지지 차원에서 박탈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사회통합, 박탈, 사회적 포용, 사회적 신뢰

* 이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6년 발간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III): 사회통합 국민인식》 보고서 제5장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eugene@kihasa.re.kr)

I. 서론

바우만(Zygmunt Bauman)은 현대 소비사회에서 “인간 실존의 적절성이 그 사회가 정의하는 남부럽잖은 생활수준에 의해 측정될 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은 그 자체로 괴로움과 고통, 굴욕의 원인이며, ‘정상적인 삶’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것에서 배제되었음, 즉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바우만 2010: 72). 또한 이러한 박탈과 배제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치스러움과 죄의식, 그 사회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기회들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고 그 결과 분노와 적의가 생기고, 그것은 폭력 행위나 자기 경멸의 형태로 또는 둘 다로 배출”(바우만 2010: 72)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바우만의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자살과 묻지 마 폭행과 같은 다양한 사회 병리와 해체 현상을 대변하는 것 같다. 빈곤, 상대적 박탈과 같은 사회적 배제는 사회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탈이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한 수준의 사회 분열과 갈등, 그리고 병리 현상으로 전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절대적 빈곤과 결핍을 경험했지만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적 전통이 살아 있던 전(前)산업사회를 거쳐 온 노인 세대는 박탈에 덜 민감할 수 있다. 반면 산업화와 소비사회의 풍요를 경험하면서 자랐지만 동시에 증가하는 불평등,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디지털 세대, 즉 청년 세대는 물질적 결핍과 상대적 박탈 그리고 기회의 제약에 더 많은 불만과 불안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더 민감할 수 있다. 김문조와 박형준(2012: 634-5)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가 한국 사회의 의식적 계급구조를 기존의 “다수 열망계급과 소수 낙망계급에서, 소수 야망계급과 다수 절망계급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상류—하류 간 단절을 공고히 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절의 고착과 심화로 인한 계급 격차는 ‘한 나라, 두 국민’의 분열을 촉발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다른 차원에서 박탈의 수준과 영역에 따라서도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거나 집세를 내지 못하거나 난방을 못할 정도의 극한 절대적 박탈 경험과, 가족 단위의 외식을 하지 못하거나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적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박탈의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979년에 타운젠트(Peter Townsend)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 개념이 실제 삶의 양식에서의 결핍을 계측하는 데 불완전한 지표라는 문제의식하에 박탈지표 방식을 개발한 이래(Townsend 1979), 박탈지표는 학계는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차원의 공식적인 빈곤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Eurostat 2016).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생계비 계측의 대안으로 박탈지표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미곤 외 1999; 여유진 외 2007). 또, 박탈 개념은 빈곤의 측정치로 충분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결핍 정도를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대책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평가된 바 있다(정원오 2008). 하지만 빈곤 측정의 대안으로써 박탈지표의 개념이 널리 연구된 것에 비해, 박탈의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관련 연구로 식품 박탈이 일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김옥진(2014)의 연구, 사회적 박탈감이 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영미(2018)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박탈과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령에 따라 청년 세대(35세 미만), 중·장년 세대(35~64세) 그리고 노년 세대(65세 이상)로 구분하여 세대별 박탈 경험의 실태를 진단하고, 영역별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세대별·영역별 박탈 수준의 차이와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1. 박탈 경험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1) 박탈지표 방식을 통한 빈곤과 배제의 측정

박탈(deprivation) 개념은 빈곤의 다차원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79년 영국의 빈곤 연구 대가인 타운젠트(Peter Townsend)에 의해 처음 학술적으로 제기된 개념이다(여유진 외 2007: 472). 그는 빈곤을 “자원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일상적인 생

활양식, 관습과 활동으로부터의 배제”(Calandrino 2003 재인용)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빈곤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는 저소득은 만족스럽지 못한 지표라고 주장한다. 즉, 현재 소득은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다른 자원들—예컨대 신체적 자산이나 저축 같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결핍이 생활수준에 미치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자원의 결핍 그 자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소득으로 측정된 빈곤과 관찰된 낮은 생활수준으로 측정된 빈곤 간에 실질적인 불일치가 관찰되기도 했다(Halleröd 1996).

이러한 소득 측정치의 한계에서 출발하여 타운센트(Townsend 1979)는 박탈지표를 통해 빈곤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후 생활양식 접근방식(life-style approach)으로도 불리는 이러한 박탈지표 방식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필품과 활동이 결핍된 정도를 계측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인 혹은 가구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고자 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박탈지표 방식은 학술적으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¹⁾ 유럽연합(EU) 차원의 사회적 배제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Eurostat 2016).²⁾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사회조사인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QLS) 조사표에도 생활양식 박탈(current life-style deprivation, CLSD)과 관련하여 세 가지 유형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Whelan & Maître 2005: 221-222).³⁾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의 한 대안으로 1999년 이래로 박탈지표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미곤 외 1999; 김미곤 외 2004; 여유진 외 2007). 이외에도, 영역별 복지 욕구의 실태와 차상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태진 외 2015)에서도 박탈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1) 박탈지표를 활용한 대표적인 빈곤 연구로는 Callan, Nolan, and Whelan(1993), Morris(1996), Calandrino (2003) 등을 들 수 있다.

2) 박탈지표는 빈곤율과 함께 유럽연합(EU)의 공식 헤드라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아동빈곤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AROPE(At-risk-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rate) 지표는 빈곤위험에 놓여 있거나 심각하게 물질적으로 박탈되어 있거나 매우 낮은 근로활동만을 수행하고 있는 가구에 사는 아동의 비율로 정의된다. 아동의 박탈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9개 항목(임대료, 난방, 갑작스러운 지출, 육류의 정기적 섭취, 휴가여행, TV, 식기세척기, 자동차, 텔레비전)에서의 박탈 여부를 측정한다.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Children_at_risk_of_poverty_or_social_exclusion#Children_growing_up_in_poverty_and_social_exclusion(2019.12.3. 접속)

3) 첫 번째 유형은 적절성의 결여로 적절한 난방, 휴가 비용, 낡은 가구의 교체, 새옷의 구입, 원하는 경우 이틀에 하루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친구나 가족과 외식을 하는 것 등 6개 항목이다. 두 번째 유형은 세 가지 항목-자동차, 컴퓨터, 식기세척기의 소유 여부이다. 세 번째 항목은 부채의 경험이다(Whelan & Maître 2005: 221-222).

박탈지표 방식은 빈곤율과 같은 소득기준 지표에 비해 빈곤가구의 생활 상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Pérez-Mayo 2003), 다차원적 빈곤의 측정이 가능하다. 초기 연구에서 타운센트는 박탈을 크게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박탈로 구분하고, 물질적 박탈을 다시 1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77개(물질적 박탈 60개) 지표를 선정하였다(Townsend 1993: 71-74). 이 때, 12개의 하위 영역은 식품, 의복, 연료와 조명, 주거시설, 주거 조건, 노동 조건, 건강, 교육, 환경, 가족활동, 레크리에이션 관계, 사회관계를 포함한다. 이후에도 박탈지표들을 하위 차원 혹은 요인들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한 연구들이 이어진다. 예를 들면, 놀란과 웰란(Nolan & Whelan 1996)은 영국에서의 박탈을 분석하면서, 박탈의 영역을 기초적 생활양식 박탈, 이차적 생활양식 박탈, 주거 박탈로 구분하였으며, 머펠스와 브린(Muffels & Vrien 1991)은 식료품 박탈과 연료 박탈 등으로 구분하였다. 웰란과 매트(Whelan & Maître 2005)는 다차원적 박탈을 주거, 이웃 환경,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안전의 차원으로 접근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에서 활용된 이래 한국복지패널 등에서 준용하고 있는 박탈지표는 타운센트의 초기 박탈지표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축약한 것이다(김미곤 외 1999).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박탈 지표 역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에서 활용된 박탈지표 항목을 준용하되 약간 수정한 것으로, 박탈의 영역을 크게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박탈로 구분하고, 상대적 박탈 영역을 다시 기초생활, 주거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문화생활 및 사회적 지지, 미래대비, 그리고 양육 및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사회통합의 개념과 인식의 측정

한편, 사회통합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유럽에서 19세기 맑스, 스펜서와 특히 뒤르켐의 저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990년대를 전후로 다시 부상했다(Spicker 2014: 99; Gough & Gunnar 1999).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과 복지국가 위기 이후 장기실업, 불평등, 이민자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통합이 학술적·정책적·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을 전후로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예를 들면, 강신욱 외 2005; 노대명 외 2009 등).

사회통합이라는 용어는 사용되는 맥락과 연구의 성격이 다양하여 하나로 정의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콜레타와 컬렌(Colletta & Cullen 2000)은 사회통합을

소득과 부의 불균형, 인종 간 긴장, 정치참여, 격차 등과 같은 잠재적인 갈등요인의 부재와, 신뢰, 호혜성과 규범, 네트워크에 기초한 강한 사회적 연대와 다양한 갈등 관리 제도의 존재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베르거-쉬미트(Berger-Schmitt 2000)는 사회통합을 두 가지 사회적 목표, 즉 한편으로 격차, 불평등,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차원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과 유대를 증진시키는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OECD의 2011년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통합은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안녕을 위해 힘쓰고, 배제나 주변화와 맞서 싸우고, 소속감과 신뢰를 증진시키며, 상향 이동의 기회를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통합을 세 가지 차원, 즉,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이동의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다(OECD 2011: 53-54). 이와 같이, 사회통합의 합의된 정의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사회통합의 개념은 대체로 두 개의 핵심적 측면, 즉 한편으로 사회적 격차, 불평등, 사회적 배제와 같은 구성원들의 물질적 안녕의 문제를, 다른 한편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호혜, 연대, 소속감과 같은 심리적 결속의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이러한 기존 개념들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직관적 인식, 사회적 배제 인식, 사회적 신뢰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3) 박탈 경험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탈은 사회통합, 특히 사회적 배제 차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바우만(2010), 김문조·와 박형준(2012) 등이 주장하듯이, 현대사회에서 물질적·사회적 박탈의 경험은 개인의 소외감을 고조시키고, 그 결과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인식,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감정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금수저, 흙수저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층 격차와 박탈(감)은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했다. 2010년 이래 각 영역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계층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 국민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75%~83% 내외로 이념, 노사, 지역, 세대 등 8개의 갈등 영역 중 최상위를 지켜왔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6:5). 따라서 상태지표로서의 박탈지표와 인식지표로서의 사회통합지표 간에 인과적 관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를 활용하여 다차원적 박탈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웰란과 매트(Whelan & Maître 2005)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사회통합 수준이 더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집단 내 차이가 집단 간 차이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볼 때 사회통합 지표들을 단

순히 경제적 취약성 수준의 부산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의 연구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 조사를 활용하여 사회통합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정해식(2015)에 의하면, 경제적 요인, 복지국가의 제도적 노력 수준과 빈곤·불평등의 정도는 사회통합 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생활수준이 열악하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음을 확인했다. 2016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박탈감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영미(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사회적 박탈감이 낮은 사람, 즉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행복감이 높고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특히 연령대에 따라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함을 확인하고 있다. 김옥진(2014)은 한국복지패널 6차와 7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박탈의 영역 중 특히 식품의 미보장이 일반적 신뢰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박탈과 사회통합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구들은 숫적으로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로 박탈의 총합적 측면 혹은 단편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박탈의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전반적인 박탈의 수준과 더불어 삶의 각 영역별 박탈 수준이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청년, 중장년, 노인으로 구분되는 연령대별로 상이한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박탈의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박탈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낮은가? 특히, 다른 요인들(개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박탈점수는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어떠한 영역에서의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가? 즉, 기초생계(식생활과 의생활), 주택 및 주거 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생활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자녀 교육 등의 영역에서의 박탈 중 사회통합 인식과 가장 관계가 깊은 영역은 무엇인가?

셋째, 청년, 중장년, 노인에 따라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총 3,669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박탈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1개 박탈 항목을 각각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 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저축, 자녀교육, 경제적 어려움의 9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9가지 차원 중 전자의 8개 영역이 소비 혹은 생활 영역에서의 박탈 상태를 보고자 한 것이라면, 마지막 경제적 어려움의 영역은 ‘절대적’ 박탈, 즉 궁핍을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9개 영역을 재분류하여 기초생활(식생활과 의생활), 주택 및 주거 환경, 의료 및 건강, 문화생활 및 사회적 지지, 미래 대비, 자녀 양육 및 교육의 6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경제적 어려움의 영역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식사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25번),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26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27번)는 기초생활 박탈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28번)와 “집세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30번)는 주거 박탈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는 의료 박탈로, 그리고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31번)를 교육 박탈로 재분류하였다.

박탈 항목의 지표화 방식은 단순합산 방식과 가중합산 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합산 방식과 가중합산 방식을 혼합하여 박탈점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상대적 박탈 항목에는 1점을, 절대적 박탈의 항목에는 2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개인(가구) 별로 박탈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합산된 총점을 최대 박탈점수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표준화하였다.

종속변수로서 사회통합 인식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조작화되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0~10점)으로,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인식을 계측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포용 정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세 개의 문항(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대 배려와 포용의 사회,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대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대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표 1> 영역별 박탈 항목

우리 가정에서는,	
기초 생활 (식생활 의생활)	1. 평균적으로 일 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 먹는다 2. 평균적으로 일 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 먹는다 3.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 먹는다 4.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5.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주택 및 주거환경	6.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7.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9.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10.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상 대 적 박 탈	11.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받을 수) 있다 12.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13.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문화 생활 및 사회적 지지	14.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15.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 16.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17.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미래 대비	18.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19.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20. 사회보험 외의 사적 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
자녀 양육 및 교육	21.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22.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23.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 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24.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우리 가정에서는,	
절 대 적 박 탈	25.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26.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 한 적이 있다 27.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28.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 한 적이 있다 29.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30.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31.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 한 적이 있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있는 사회)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두 개의 문항(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대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을 사용하였다. 박탈지표 점수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 인식 점수도 표준화를 위하여 합산 후 최댓값으로 나누어 여기에 100을 곱하여 줌으로써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표 2> 사회통합 인식(종속변수)의 개념과 척도

개념		척도	
전반적인 사회통합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배려와 포용의 사회
사회적 포용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사회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서로 못 믿고 의심하는 사회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사회적 신뢰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 사회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점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19~34세, 35~64세, 65세 이상), 학력(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학 이상), 경제활동 상태(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투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박탈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에 주목하고자, 세 개의 연령군, 즉 청년(35세 미만), 중장년(35~64세), 그리고 노인(65세 이상)에 대해 별도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은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령군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계수값(coefficient)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계수값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F값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분석결과

1. 기초 분석결과

<표 3>은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거의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44.7세이다. 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가장 많아 43.4%이며, 다음으로 대학 이상(40.2%), 중졸 이하(16.4%)의 순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 노인, 주부를 포함하여 총 30%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비임금근로자가 23.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15.2%의 순이며, 실업자도 3.1%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인구학적 특성(단위: %)

구분	항목	비율
성별	남자	50.5
	여자	49.5
연령	평균 연령	44.7
	19-34세	29.4
	35-64세	60.0
	65세 이상	10.7
학력	중졸 이하	16.4
	고졸 이하	43.4
	대학 이상	40.2
경제활동 상태	비경제활자	30.0
	실업자	3.1
	비임금근로자	23.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5.2
	정규직 임금근로자	2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표 4> 연령별 · 박탈 항목별 박탈의 비율

(단위: %)

분류	구분	항목	전체	연령별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상 대 적 박 탈	기초생활	1주일 1회 이상 육류 섭취	6.99	4.35	6.50	16.99
		1주일 1회 이상 과일 섭취	7.12	6.49	6.07	14.73
		기호식품 구입	2.99	1.35	2.51	10.23
		동절기 의류 2벌 이상	4.04	2.38	4.38	6.67
		계절 정장 보유	9.26	9.25	8.55	13.27
	주택 및 주거 환경	적절한 난방	2.07	0.99	2.28	3.90
		적절한 방 수	3.56	3.86	3.66	2.22
		10분내 대중교통	2.34	1.19	2.52	4.54
		옥탑방이나 (반)지하 아닌 지상 거주	5.46	6.38	5.13	4.76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	0.96	0.53	1.00	1.92
의료 및 건강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 진료	7.84	7.80	7.99	7.14	
	치과 치료	4.35	3.44	4.12	8.15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구매	1.35	1.07	1.36	2.10	
	1년 1회 이상 가족여행	26.10	21.86	24.17	48.65	
문화생활 및 사회적 지지	특별한 날 기념	11.07	8.35	11.06	18.63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26.65	17.70	26.64	51.32	
	위로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5.43	2.77	5.65	11.54	
미래 대비	비일상적 지출에 대비(저축)	26.28	24.20	23.28	48.87	
	노후 대비 연금이나 저축	25.40	30.06	19.47	45.96	
	사보험 가입	16.74	18.67	11.72	39.67	
	자녀 고등교육 가능	5.30	2.19	6.12	11.84	
자녀 양육 및 교육 ¹⁾	학원 수강이나 과외 가능	9.79	5.79	10.80	19.54	
	기본 참고서나 도서 구매 가능	2.61	1.28	2.57	17.26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 책임	3.26	1.71	3.30	17.26	
	결식, 절식	5.20	4.40	5.69	4.62	
절 대 적 박 탈	기초생활	공과금 미납	5.64	4.49	6.73	2.74
		전기, 전화, 수도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등	2.34	1.37	2.86	2.03
		추운 겨울 난방 불가	3.13	1.02	3.73	5.58
주택 및 주거 환경	집세 체납으로 인한 이사	2.38	2.25	2.75	0.63	
	의료 및 건강	질병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못 감	2.79	1.57	3.16	4.02
	자녀 양육 및 교육 ²⁾	공교육비 1개월 이상 체납	3.77	2.90	4.06	3.69

주: 1) 2) 현재 대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조사된 사람 대비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박탈지표와 관련하여, 개별 항목별 박탈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생활과 미래 불안정에 대한 대비 영역에서 박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명 중 약 1명은 1년에 한번 이상 가족여행을 갈 수 없거나(26.1%),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없거나(26.65%),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하여 저축할 여력이 없거나(26.28%), 노후에 대비하여 연금이나 저축을 하지 못하는(25.40%)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는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거나,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할 물질적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박탈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은 사보함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16.74%),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할 여력이 없는 경우(11.07%), 자녀가 원하는 경우에도 학원 수강이나 과외를 시킬 수 없는 경우(9.79%), 계절 정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9.26%) 등이다.

절대적 박탈 경험의 경우,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5.64%),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5.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의 공교육비를 1개월 이상 주지 못한 경험(3.77%), 추운 겨울임에도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3.13%),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2.79%), 집세가 밀렸거나 이로 인해 이사한 경험(2.38%),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등의 경험(2.34%)의 순이었다. 특히, 절대적 박탈 항목 중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항목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10.3%로, 균등화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 12.3%에 비해서는 낮지만 상당한 비율이다. 즉, 10명 중 1명 정도는 연간 절대적 박탈을 한 가지 이상 경험한다는 것이다(<표 5> 참조).

<표 5> 빈곤율(중위 50% 기준) 및 절대적 박탈 경험률 (단위: %)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소득 빈곤율	12.3	4.3	9.8	48.4
재산 빈곤율	26.1	32.2	22.0	32.7
절대적 박탈 경험률	10.3	8.6	11.5	8.2

주: 1) 소득은 1인 균등화된 가구소득 기준이며, 재산은 가구총재산 기준임.

2) 절대적 박탈은 7개의 박탈 중 1개 이상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연령별로 볼 때 두드러진 점은, 첫째, 노인의 경우 대부분의 박탈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생활이나 미래

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실성 있는 결과로서, 48.4%에 이르는 노인의 높은 소득 빈곤율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난 1년간 1가지 이상의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35~64세의 중장년층에서 11.5%로 가장 높았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경우 소득 빈곤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장년층의 경우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비율이 노인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공과금이나 자녀 공교육비 체납,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그리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등의 경험을 한 사람의 비율이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5세 미만 청년들의 경우, 대부분의 박탈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경험률을 보이지만 주거 박탈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6.4%, 적절한 방 수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이 3.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박탈 경험률이 다소 높았다. 이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의 높은 재산 빈곤율(32.2%)과 무관치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6> 연령별 박탈의 빈도

연령 구분	기초 생활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미래 대비	절대적 박탈
35세 미만		적절한 방 수 지상 거주					
35세-64세	결식 공과금 미납 단전, 단수	적절한 방 수 집세 체납 이사	만성질환 진료				
65세 이상							

주: 격자무늬는 해당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박탈 경험률을 보이는 연령대임. 단,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해당 항목이 특별히 높은 연령대는 해당 항목 표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연령별 사회통합 인식 점수는 <표 7>과 같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에서, 전반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점수는 41.82점,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점수는 38.60점,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점수는 38.22점으로 각각 나타나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5세 미만 청년층이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신뢰도를 낮게 평가했다.

〈표 7〉 연령별 사회통합 인식 점수

(단위: 점)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F	Prob > F
전반적인 사회통합	41.82	41.99	41.70	42.03	0.12	0.888
사회적 포용	38.60	37.00	38.85	41.60	14.2	0.000
사회적 신뢰	38.22	36.24	38.94	39.61	12.8	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표 8〉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상관관계

	기초 박탈	주거 박탈	의료 박탈	문화 박탈	미래 박탈	교육 박탈	상대 박탈	절대 박탈	총 박탈	전반적 통합	사회적 포용
기초 박탈	1.000										
주거 박탈	0.602*	1.000									
의료 박탈	0.575*	0.509*	1.000								
문화 박탈	0.401*	0.292*	0.290*	1.000							
미래 박탈	0.362*	0.302*	0.271*	0.559*	1.000						
교육 박탈	0.361*	0.419*	0.309*	0.169*	0.186*	1.000					
상대 박탈	0.624*	0.521*	0.533*	0.819*	0.779*	0.392*	1.000				
절대 박탈	0.797*	0.731*	0.576*	0.175*	0.197*	0.461*	0.323*	1.000			
총 박탈	0.832*	0.725*	0.663*	0.701*	0.681*	0.505*	0.905*	0.694*	1.000		
전반적 통합	-0.105*	-0.064*	-0.061*	-0.136*	-0.117*	-0.048*	-0.139*	-0.068*	-0.136*	1.000	
사회적 포용	-0.064*	-0.023*	-0.016	-0.054*	-0.039	-0.025	-0.052*	-0.044*	-0.059*	0.437*	1.000
사회적 신뢰	-0.074*	-0.038	-0.020	-0.078*	-0.057*	-0.026	-0.074*	-0.049*	-0.078*	0.433*	0.801*

주: * $p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박탈 영역 및 총 박탈 점수는 사회통합 인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박탈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고서도 여전히 둘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지, 그리고 특정 연령대에서 그러한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박탈의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⁴⁾

1)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

먼저 박탈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박탈점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연령에서 총박탈점수는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박탈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통합적이지 않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령대별 총박탈점수의 회귀계수값 차이(F 값)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모형에서 연령을 더미변수로 투입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데서도 확인된다.

한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도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회통합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리나라가 더 통합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날 뿐, 다른 인구학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박탈의 영역별로 전반적인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기초생계 박탈과 문화 박탈, 그리고 미래 대비에 대한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하의 분석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사례 수가 적은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통합 인식모형이 전반적으로 모형적합도(F 값)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연구 질문 중 하나가 “청년, 중장년, 노인에 따라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F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노인의 사회통합 인식모형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9> 총박탈점수가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총박탈점수		-0.666*** (0.080)	-0.965*** (0.185)	-0.597*** (0.099)	-0.538** (0.203)
여성(남성=0)		1.751** (0.633)	-0.903 (1.211)	2.849*** (0.850)	1.452 (1.795)
연령 (35세 미만=0)	35-64세	-0.206 (0.726)			
	65세 이상	1.582 (1.238)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702 (0.958)	-3.125 (5.833)	1.349 (1.142)	0.254 (2.047)
	대학 이상	0.094 (1.022)	-2.629 (5.820)	0.383 (1.196)	-0.689 (3.590)
경제활동상태 (비경활=0)	실업자	-1.373 (1.942)	-2.176 (3.012)	-0.356 (2.829)	-7.697 (6.902)
	자영자	-1.983* (0.855)	0.384 (2.372)	-2.078 -1.115	-1.968 -1.933
	비정규직 근로자	-2.095* (0.969)	-2.218 (1.835)	-2.073 -1.295	-1.151 -2.613
	정규직 근로자	0.467 (0.861)	0.177 (1.479)	0.565 (1.181)	4.09 (4.494)
상수		42.990*** (1.301)	48.005*** (5.943)	41.637*** (1.480)	44.209*** (1.994)
N		3,669	948	2,281	440
r ²		0.028	0.037	0.03	0.026
F값		10.56***	4.56***	8.88***	1.44
총박탈점수 계수값 차이의 유의미도 검증		F=2.43 (Prob>F=0.088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표 10> 박탈 영역별 점수가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 박탈	-0.086** (0.033)	-0.167* (0.070)	-0.075 (0.043)	-0.007 (0.088)	
주거 박탈	-0.006 (0.045)	-0.11 (0.096)	0.035 (0.056)	-0.083 (0.129)	
의료 박탈	0.025 (0.031)	0.032 (0.065)	0.035 (0.039)	-0.002 (0.082)	
문화 박탈	-0.050*** (0.014)	-0.046 (0.032)	-0.056** (0.018)	-0.032 (0.030)	
미래 대비 박탈	-0.035** (0.011)	-0.02 (0.021)	-0.046** (0.016)	-0.033 (0.023)	
교육 박탈	-0.029 (0.035)	-0.069 (0.089)	-0.032 (0.041)	0.044 (0.126)	
여성(남성=0)	1.648** (0.633)	-0.978 (1.219)	2.688** (0.850)	1.445 (1.810)	
연령 (35세 미만=0)	35-64세	-0.282 (0.730)			
	65세 이상	2.069 (1.245)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321 (0.965)	-3.554 (5.885)	0.703 (1.155)	-0.097 (2.079)
	대학 이상	-0.442 (1.034)	-3.081 (5.864)	-0.494 (1.219)	-0.933 (3.610)
경제활동상태 (비경활=0)	실업자	-0.883 (1.945)	-2.079 (3.050)	0.221 (2.826)	-7.153 (6.951)
	자영자	-2.103* (0.856)	0.257 (2.379)	-2.296* (1.117)	-1.921 (1.985)
	비정규직 근로자	-2.110* (0.969)	-2.107 (1.843)	-2.108 (1.295)	-1.367 (2.653)
	정규직 근로자	0.253 (0.864)	0.227 (1.490)	0.177 (1.185)	4.225 (4.539)
상수	43.905*** (1.330)	48.402*** (5.971)	43.079*** (1.527)	44.989*** (2.097)	
N	3,669	948	2,281	440	
r ²	0.032	0.039	0.038	0.03	
F값	8.03***	2.95***	6.80***	1.03	
계수값 차이의 유의미도 검증	기초생활박탈	F=2.76 (Prob > F=0.0635)			
	주거박탈	F=1.55 (Prob > F=0.2134)			
	의료박탈	F=0.73 (Prob > F=0.4809)			
	문화박탈	F=1.31 (Prob > F=0.2710)			
	미래대비박탈	F=1.18 (Prob > F=0.3089)			
	교육박탈	F=0.96 (Prob > F=0.3348)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즉, 일상생활에서 기본 욕구의 박탈을 경험하거나, 보편적으로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생활 또는 사회적 지지로부터 소외되거나, 미래의 불안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리 사회의 통합도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연령대 별로 볼 때, 35세 미만의 청년은 절대적·기초적 박탈 경험이 높을수록, 중장년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어렵거나, 미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을수록 사회통합에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영역별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세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회귀계수 값의 연령대 별 차이에 대한 F 값 산출 결과, 모든 박탈 영역에서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박탈 경험이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전체적인 사회통합도에 대한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총박탈점수는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별로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 청년과 노인의 경우 박탈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의 사회적 포용도가 낮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은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박탈 경험이 사회포용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회귀계수값의 세대 간 차이 또한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세대 간 박탈에 따른 포용도 인식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청년이 중장년이나 노인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포용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또, 전체적인 사회통합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장년층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포용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총박탈점수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총박탈점수		-0.239*** (0.068)	-0.738*** (0.158)	-0.062 (0.086)	-0.329* (0.149)
여성(남성=0)		1.034 (0.544)	-1.231 (1.035)	2.413** (0.744)	0.516 (1.317)
연령 (35세 미만=0)	35-64세	1.881** (0.623)			
	65세 이상	3.705*** (1.063)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134 (0.823)	0.934 (4.983)	0.859 (0.999)	-1.928 (1.501)
	대학 이상	-1.642 (0.878)	-0.327 (4.973)	-1.203 (1.046)	1.945 (2.633)
경제활동 상태 (비경제활동=0)	실업자	-1.599 (1.668)	-0.918 (2.573)	-0.816 (2.475)	-11.844* (5.062)
	자영자	-1.138 (0.734)	-3.059 (2.026)	0.666 (0.976)	-4.333** (1.418)
	비정규직 근로자	-0.594 (0.832)	-1.918 (1.568)	0.931 (1.133)	-1.525 (1.916)
	정규직 근로자	0.757 (0.739)	0.042 (1.263)	2.270* (1.033)	-5.049 (3.296)
상수		37.950*** (1.117)	39.521*** (5.078)	36.981*** (1.294)	43.860*** (1.462)
<i>N</i>		3,669	948	2,281	440
<i>r</i> ²		0.013	0.031	0.01	0.049
<i>F</i> 값		4.98***	3.82***	2.79**	2.80**

총박탈점수 계수값 차이의
유의미도 검증

$F=7.40$ ($Prob > F=0.0006$)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표 12> 박탈 영역별 점수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 박탈		-0.098*** (0.029)	-0.213*** (0.059)	-0.073 (0.037)	-0.033 (0.065)
주거 박탈		0.049 (0.038)	-0.08 (0.082)	0.083 (0.049)	0.012 (0.094)
의료 박탈		0.078** (0.026)	0.126* (0.055)	0.078* (0.034)	0.03 (0.060)
문화 박탈		-0.034** (0.012)	-0.042 (0.027)	-0.034* (0.016)	-0.018 (0.022)
미래 대비 박탈		-0.011 (0.010)	0.002 (0.018)	-0.009 (0.014)	-0.033 (0.017)
교육 박탈		-0.001 (0.030)	-0.147 (0.076)	0.008 (0.036)	0.08 (0.092)
여성(남성=0)		0.910 (0.543)	-1.335 (1.035)	2.276** (0.744)	0.479 (1.322)
연령 (35세 미만=0)	35-64세	1.900** (0.626)			
	65세 이상	4.089*** (1.067)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197 (0.828)	-0.126 (4.998)	0.328 (1.010)	-2.295 (1.518)
	대학 이상	-2.100* (0.887)	-1.399 (4.980)	-1.885 (1.066)	1.671 (2.636)
경제활동 상태 (비경활=0)	실업자	-1.179 (1.667)	-0.971 (2.590)	-0.418 (2.472)	-11.091* (5.075)
	자영자	-1.275 (0.734)	-3.366 (2.020)	0.521 (0.977)	-4.593** (1.449)
	비정규직근로자	-0.587 (0.831)	-1.731 (1.565)	0.897 (1.133)	-1.78 (1.937)
	정규직근로자	0.601 (0.741)	0.138 (1.265)	2.022 (1.037)	-5.05 (3.314)
상수		38.651*** (1.140)	40.390*** (5.071)	38.050*** (1.336)	44.919*** (1.531)
N		3,669	948	2,281	440
r ²		0.020	0.045	0.017	0.062
F값		5.08***	3.39***	3.08***	2.17*
계수값 차이의 유의미도 검증	기초생활박탈	F=7.97 (Prob > F=0.0004)			
	주거박탈	F=5.03 (Prob > F=0.0066)			
	의료박탈	F=2.13 (Prob > F=0.1193)			
	문화박탈	F=0.42 (Prob > F=0.6593)			
	미래대비박탈	F=1.92 (Prob > F=0.1436)			
	교육박탈	F=4.67 (Prob > F=0.009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박탈의 영역별로 사회적 포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 박탈과 문화적 박탈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생필품 조달이나 공과금 납부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의 결핍을 경험할수록 우리나라의 사회적 포용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의료적 박탈을 경험할수록 사회적 포용도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석을 유보하고자 한다. 연령별로 볼 때도 결과는 전체적인 사회통합도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 즉, 청년의 경우 기초생활의 박탈을 경험할수록, 중장년의 경우 문화생활의 박탈을 경험할수록 사회적 포용도를 낮게 평가했다. 다만, 기초생활 박탈의 경우 세 연령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문화 박탈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컨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우리 사회가 차별과 소외가 심하고, 활력이 떨어지며, 미래가 불안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박탈이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결과는 앞선 두 차원의 사회통합 변수—전반적인 사회통합도,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의 분석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즉, 박탈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연령별로는 청년과 중장년층은 총박탈점수가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에 대한 F 값 검증 결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나라 사회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장년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박탈의 영역별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에서의 박탈과 문화적 박탈은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3> 총박탈점수가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총박탈점수		-0.434*** (0.067)	-0.784*** (0.161)	-0.363*** (0.082)	-0.239 (0.166)
여성(남성=0)		0.791 (0.533)	-1.738 (1.052)	2.167** (0.706)	0.831 (1.469)
연령 (35세 미만=0)	35-64세	2.248*** (0.611)			
	65세 이상	2.786** (1.042)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1.014 (0.806)	0.653 (5.067)	-0.532 (0.948)	-2.485 (1.675)
	대학 이상	-3.005*** (0.860)	-0.857 (5.056)	-2.601** (0.993)	0.833 (2.938)
경제활동 상태 (비경제활동=0)	실업자	-1.163 (1.635)	-3.024 (2.617)	2.565 (2.348)	-15.844** (5.647)
	자영자	-0.490 (0.719)	-3.043 (2.060)	1.36 -0.926	-2.453 -1.581
	비정규직 근로자	0.089 (0.815)	-2.852 (1.595)	2.134* -1.075	0.41 -2.138
	정규직 근로자	1.314 (0.725)	0.324 (1.285)	2.685** (0.981)	-0.074 (3.677)
상수		38.787*** (1.095)	39.845*** (5.163)	38.440*** (1.228)	41.601*** (1.631)
<i>N</i>		3,669	948	2,281	440
<i>r</i> ²		0.022	0.041	0.019	0.035
<i>F</i> 값		8.23***	4.95***	5.40***	1.96*
총박탈점수 계수값 차이의 유의미도 검증		<i>F</i> =4.86 (<i>Prob</i> > <i>F</i> =0.0078)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표 14> 박탈 영역별 점수가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 박탈		-0.074** (0.028)	-0.223*** (0.060)	-0.021 (0.035)	-0.054 (0.072)
주거 박탈		-0.016 (0.038)	-0.064 (0.083)	0.005 (0.047)	-0.104 (0.105)
의료 박탈		0.056* (0.026)	0.097 (0.056)	0.037 (0.032)	0.103 (0.067)
문화 박탈		-0.051*** (0.012)	-0.057* (0.028)	-0.053*** (0.015)	-0.039 (0.024)
미래 대비 박탈		-0.009 (0.009)	0.004 (0.018)	-0.02 (0.013)	0.003 (0.019)
교육 박탈		-0.027 (0.030)	-0.066 (0.077)	-0.04 (0.034)	0.105 (0.102)
여성(남성=0)		0.662 (0.533)	-1.909 (1.054)	2.015** (0.706)	0.555 (1.475)
연령 (35세 미만=0)	35-64세	2.332*** (0.614)			
	65세 이상	3.109** (1.047)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1.338 (0.812)	-0.341 (5.087)	-1.014 (0.959)	-2.553 (1.694)
	대학 이상	-3.472*** (0.870)	-1.865 (5.069)	-3.320** (1.012)	0.495 (2.942)
경제활동 상태 (비경활=0)	실업자	-0.829 (1.636)	-2.969 (2.637)	2.916 (2.347)	-14.956** (5.664)
	자영자	-0.514 (0.720)	-3.272 (2.056)	1.286 (0.927)	-2.398 (1.617)
	비정규직 근로자	0.136 (0.815)	-2.594 (1.593)	2.194* (1.075)	0.12 (2.162)
	정규직 근로자	1.229 (0.727)	0.493 (1.288)	2.440* (0.984)	0.3 (3.699)
상수		39.373*** (1.118)	40.669*** (5.161)	39.519*** (1.268)	42.121*** (1.708)
<i>N</i>		3,669	948	2,281	440
<i>r</i> ²		0.027	0.052	0.025	0.047
<i>F</i> 값		6.81***	3.95***	4.52***	1.62
계수값 차이의 유의미도 검증	기초생활박탈		<i>F</i> =7.34 (<i>Prob</i> > <i>F</i> =0.0007)		
	주거박탈		<i>F</i> =1.79 (<i>Prob</i> > <i>F</i> =0.1672)		
	의료박탈		<i>F</i> =1.52 (<i>Prob</i> > <i>F</i> =0.2196)		
	문화박탈		<i>F</i> =1.13 (<i>Prob</i> > <i>F</i> =0.3225)		
	미래대비박탈		<i>F</i> =2.02 (<i>Prob</i> > <i>F</i> =0.1327)		
	교육박탈		<i>F</i> =1.60 (<i>Prob</i> > <i>F</i> =0.201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문화적 박탈 영역에는 사회적 지지(힘들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문화적으로 박탈된 경우 사회적 신뢰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어떠한 박탈 영역도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는 앞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연령별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5> 분석 결과 요약: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미래 대비 박탈 여>남 자영<비경활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총박탈점수 문화 박탈 미래 대비 박탈 여>남 자영<비경활	총박탈점수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청년<중장년, 노인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여>남 정규직>비경활	총박탈점수 자영, 실업<비경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청년<중장년, 노인 대학 이상<중졸 이하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총박탈점수 문화 박탈 대학 이상<중졸 이하 여>남 임금근로자>비경활	실업자<비경활

주: 고딕 글씨는 다른 연령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임.

첫째, 전 연령에서 박탈의 경험은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박탈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전체

적으로 총박탈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포용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35세 미만 청년의 경우 박탈 경험률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의 사회적 포용도가 낮다고 인식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의 경우 그 정도는 청년에 비해 약하지만 역시 포용도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박탈점수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높은 박탈을 경험할수록 우리나라의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청년과 중장년층은 박탈 경험률이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았지만, 노인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35-64세 인구의 경우 특히 문화적 박탈이 사회적 포용 및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행 등 가족과의 여가시간, 위로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의 존재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할수록 사회적 포용, 또는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주로 소득이나 지출—드물지만 재산—을 많이 활용해 왔으나, 본 연구의 결과 생활수준이나 경제적 상태의 대리변수로서 박탈지표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대리변수로서 박탈지표는 총량적 수준에서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관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상관관계의 수준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0.2 내외), 사회통합 인식에 더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다.⁵⁾ 이러한 결과는 빈곤의 결과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저소득은 만족스럽지 못한 지표라고 주장한 타운센트(Townsend 1979)의 주장과, 소득으로 측정된 빈곤지표와 박탈지표로 관찰된 빈곤지표 간의 불일치를 확인한 홀로드(Hallerod 1996)와 페레즈 마요(Perez-Mayo 2003)의 연구결과 등을 일정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소득과 재산의 빈곤율은 노인에 비해 훨씬 낮았지만, 지난 1년간 절대적 박탈을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노인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중장년층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집단인 만큼 상시적인 빈곤에 빠질 위험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생애주기상 교육비, 주거비 등의 지출 부담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니만큼 소득 수준이 생활 영역 전반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보기에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구

5) 미미하지만 사회통합 인식과 상관관계 수준이 더 높았고, 지면에 게재하지는 않았으나 소득, 재산, 혹은 소득 계층을 투입한 결과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나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보조지표로서 박탈지표의 활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하겠다.

둘째, 다차원적 박탈의 영역별로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박탈의 영역이 사회통합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특히, 기초생계 박탈과 문화적 박탈, 그리고 미래 대비에서의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자면, 전반적인 사회통합의 수준과 사회적 포용,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에서의 박탈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 복지와 미래 안정성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요구된다.

셋째, 다른 연령대에 비해 35세 미만 청년의 경우, 특히 기초생계의 박탈이 일어날 경우 사회통합의 포괄적 영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생애주기 상 사회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결핍을 안고 출발한다는 것은 청년의 전반적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보고서(여유진·정해식 등 2015)의 “최근 세대로 올수록 사회의 기회구조가 점점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연결지어 볼 때 이러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기초생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노동시장·사회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경우 문화적 박탈과 미래 대비 박탈이 일어날 때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OECD 2위의 긴 평균 근로시간⁶⁾으로 대변되는 ‘피로사회’로서, 한국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즉, 문화적 박탈의 결과는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은 이러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장년층의 경우 유독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문화적 박탈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결합해 보면 이러한 그림은 대략 들어맞는다. 더 불어 미래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수록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특히 소득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저축과 미래 대비의 여력이 부족

6) 한국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더 많다(한국일보(2016.8.15.자), ‘한국 근로자 노동시간 OECD 2위, 임금은 중하위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장해 줄 공적 보장제도도 미약하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인구의 상시적 불안감을 안겨주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6. “2016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김문조·박형준. 2012.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한 한국인.” 《사회와 이론》 2(2): 611-643.
- 김미곤·여유진·양시현·강성호·김태완·이경민. 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김미곤·여유진·이태진·양시현·최현수·김태완 외. 2004.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김옥진. 2014. “배고픔은 신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적 사회신뢰와 식품 미보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3): 1-29.
- 노대명·이현주·강신욱·강은정·전지현·이은혜.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손창균·최현수·이선우 외. 2007. 《2007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여유진·정해식·김미곤·김문길·강지원·우선희·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미. 2018.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박탈감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행정논집》 30(1): 195-218.
- 이태진·임완섭·강신욱·김태완·여유진·최현수 외. 2015. 《2014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정원오. 2008. “박탈과 주관적 빈곤의 개념적 유용성 검토.”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 145-161.
- 정해식. 2015.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 통합 상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21: 23-35.
- 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문길·우선희·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바우만, 지그문트 지음, 이수영 옮김. 2010.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천지인.

Berger-Schmitt, R. 2000. "Social Cohesion as an Aspect of the Quality of Societies: Concept and Measurement" *Eu Reporting Working Paper 14*. Mannheim: Centre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ZUMA).

Calandrino, M. 2003. "Low-income and Deprivation in British Families: A Study Carried Out on Behalf of DWP," *Working Paper 10*.

Callan, T., B. Nolan, and C.T. Whelan. 1993. "Resource, Deprivation and the Measurement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22(2): 141-172

Colletta, N.J. and M.L. Cullen. 2000. "The Nexus between Violent Conflict Social Capital and Social Cohesion: Case Studies from Cambodia and Rwanda." *Social Capital Initiative Working Paper 23*. Washington: The World Bank.

Eurostat. 2016.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Indicators to Support the Europe 2020 Strategy*.

Gough, I. and O. Gunnar. 1999. *Capitalism and Social Cohesion: Essays on Exclusion and Integration*. MacMillan Press.

Halleröd, B. 1996. "Deprivation and Poverty: A Comparative Analysis of Sweden and Great Britain." *Acta Sociologica* 39(2): 141-168.

Pérez-Mayo J, 2003. "Measuring Deprivation in Spain." *IRISS(An Integrated Research Infrastructure in the Socio-Economic Sciences) Working Paper Series 2003-09*.

Morris, L. 1996. "Researching Living Standards: Some Problems and Some Findings." *Journal of Social Policy* 26(4): 459-483.

Muffels, R. and M. Vrien. 1991. *The Comparison of Definitions of Consumption Deprivation and Income Deprivation*. Tilburg University.

Nolan, B. and C.T. Whelan. 1996. *Resource, Deprivation and Poverty*. Oxford: Clarendon Press.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OECD Publishing.

Spicker, P. 2014. "Cohesion, Exclusion and Social 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Quality* 4(1): 95-107.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Harmondsworth: Penguin Books.

Townsend, P. 1993. *The International Analysis of Poverty*. Harvester Wheatsheaf.

Whelan, C.T. and B. Maître. 2005. "Economic Vulnerability,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and Social Cohesion in an Enlarged European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46(3): 215-239.

<접수 2019.10.15.; 수정 2020.01.02.; 게재확정 2020.01.07>

Impact of Deprivation Experience on Social Integration Perceptions: Centered on Differences by Age Group

Eugene Yeo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deprivation experiences on social integration perceptions by age group.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evel of deprivation by age and deprivation area, first, the elderly had a high overall deprivation experience rate, while the middle-aged people had a significant proportion of people who experienced absolute deprivation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over the past year. It was higher than the elderly.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deprivation, regardless of age, the more negative to perceive social integration. In particular, the youth showed a high correlation between deprivation experience and social inclusion, and the middle-aged showed a high correlation between deprivation experience and social trust. In addition, the higher the deprivation of basic livelihoods among young people, and the higher deprivation of the middle-aged in terms of cultural and social support, the lower the awareness of social integr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order to enhance social cohesion, the overall social safety net and especially the emergency support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ocial mobility channels of the youth generation and to strengthen welfare programs such as social housing during the youth. Policy priorities should also be given to the strengthening of public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s.

Key words: social cohesion, deprivation, social inclusion, trust